

# '재활 승마'로 장애인 마음도 어루만져요

국제적 협력·학술 교류의 무대  
코엑스서 내달 7일~10일 개최  
행사·세션은 온라인으로 참여

말은 과거에 가축이자 이동수단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재활승마를 통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존재로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재활승마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지적,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안녕을 주기 위해 인간과 말이 함께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활승마의 국제적 협력과 학술교류의 무대인 '세계재활승마연맹(HETI) 세계대회'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 ●신체적 재활 넘어 정서적 재활까지

재활승마의 시작은 최소 기원전 4000년 경으로 추정된다. 말의 걸음은 사람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보행 장애인들은 승마를 하면 평소 사용하기 힘든 다리근육에 자극을 받고 경직된 신체를 풀어 자세교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말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정도로 대뇌연계가 발달해 말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 감소, 생활 만족도 등 정서적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승마가 대중화된 북미와 유럽에서 재활승마는 상당히 저변이 넓다. 국가별로 단일 협회가 중심이 되어 승마센터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양질의 재활승마를 보급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



"말의 기분이 느껴져요". 마사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가 재활승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는 재활승마부터 최근에는 PTSD(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는 상이군인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소통능력과 사회적응력, 관계개선능력, 집중력, 동기부여, 인지능력 등을 개선하는데 재활승마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민간 기업이 승마를 통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재활승마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됐다. 이후 한국마사회가 2005년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재활승마 강습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재활승마 교관 양성을 위해 해외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재활승마의 토대를 닦아왔다. 2016년부터는 재활힐링협력마사시절 협약을 체결하며 재활승마의 전국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사회공익 직군(소방관,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사회공익

힐링승마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연희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발달장애, 자폐, 여러 근육경직환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재활승마를 통해 신체적인 재활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갖게 되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했다.

### ●재활승마 발전상 공유, HETI 2021 대회

재활승마와 관련된 학문적 성과, 경험 및 기법 등을 공유하는 국제협력단체가 '세계재활승마연맹(HETI)'이다. 1980년에 발족해 현재 30개국 50개 단체의 연맹 회원으로 이루어져있다. 3년마다 회원간 교류, 협력, 교육, 연구개발 활동 등을 위해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덴마크 등을 거쳐 2015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열리는 'HETI 2021' 세계대회는 'Widen the Spectrum(스펙트럼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재활승마 분야의 최근 확장 추세와 추후 발전상을 공유한다. 500~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각 행사와 세션은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HETI 2021' 세계대회는 학계 전문가와 학생, 재활승마 종사자 및 재활승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참가자들은 별도 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말산업 정보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 및 HETI 2021 홈페이지(www.heti20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마사회 "하반기 특화경주 25% 규모 편성"

한국마사회는 13일 하반기 경마시행방향을 수립해 공개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무고객 경마를 시행했다. 매출이 정상시행의 4%에 불과해 비용 지출이 더 크지만 2000여 경마 관계자와 경주마 생산농가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반기 경마시행 방향은 국산마 생산과 환류 체계가 막힌 부분없이 돌아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신마, 미승리마, 경매마가 출전하는 특화경주를 시행한다. 하반기 특화경주를 총 경마시행의 25% 규모로 편성했다. 당초 총 경주의 20% 정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신마 수급과 경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대했다. 마사회는 특화경주가 위축된 경주마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경주는 순위상급도 높일 계획이다.



### 마사회 온라인 문화센터, 28일까지 수강생 모집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전국 27개 장외발매소의 문화센터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는 온라인 강좌로 전환한다. 28일까지 한국마사회 문화공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비경마일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을 활용해 연간 2800여 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했고, 연간 회원이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대면 강좌가 모두 중단돼 이번엔 온라인 전환을 결정했다.

온라인 문화센터는 6월 3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강좌별 최대 20명으로 정원을 제한한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기억력 향상을 위한 강좌부터 성인 대상 요가, 트로트교실 등 총 8개 강좌를 개설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국내산마 경매 낙찰률 24%...생산농가 울상

축경비대위, 온라인 마권 발매 촉구  
마사회, 생산장려금 22억 조기 집행

11일 한국마사회 제주 목장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주관하는 5월(2세마) 국내산마 경매가 열렸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부처가 경매현장을 방문해 생산농가들과 말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5월 경매 역시 온·오프라인 동시 경매로 시행했다.

5월 경매에는 총 139두가 상장되어 이 중 33두가 새 주인을 찾아 24%의 낙찰률을 보였다. 낙찰 최고가는 7800만 원으로 부마가 메니피, 모마가 모닝뮤직이었다. 메니피, 한센, 테이크차지인디 등 인기 씨수말들의 자마들이 눈길을 끌었지만 3월 경매와 비교해 낙찰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평균낙

찰가와 낙찰 총액은 떨어졌다. 이번 경매 평균낙찰가는 3474만 원이었으며 총 낙찰액은 11억 4650만 원이다.

경매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경매 전날 열린 브리즈업(Breeds up)에 많은 경주마 관계자들이 모였다. 브리즈업 쇼는 경매 시행 전 상장된 말이 200m를 질주하고 그 결과를 구매 희망자들에게 공개하는 행사다. 브리즈업을 관전할 승문길 조교사는 "브리즈업 기록도 중요하지만 마체를 비롯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편으로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말산업의 숨통을 열어줄 판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매가 하루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마사회, 생산장려금 33억 조기집행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생산농가들을 위해 지난해 4400억 원 적자 상황에도

지역	제주	장수	제주
주관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일시	3월23일	4월27일	5월11일
연령	2세마	2세마	2세마
상장 두 수	161	50	139
낙찰 두 수(낙찰률)	37(23%)	13(26%)	33(24%)
최고가	1억5000만원	6000만원	7800만원
평균가	3886만원	2213만원	3474만원
낙찰총액	14억3800만원	2억8770만원	11억4650만원

불구하고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생산장려금 33억 원 중 약 22억 원을 상반기 내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마 수요 증진과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주마 입사 연령을 기존 2세에서 3세 1분기로 완화하고 국산마 특화경주와 국산마 한정 대상경주를 확대했다. 세이프 가드도 발동해 연간 300두 규모의 외산마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외산경주마는 암말로 한정하는 등 경마시행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경마 관계자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축경비대위)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정상 경마가 시행되도록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 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회장은 "국민의 응원과 관심을 등에 업고 우리 국내산마 경매 시장이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온라인 마권 발매 등 조속한 해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김재범 기자

## 홀덤편

# 홀덤편협회 "집합금지·고위험시설 해제해 달라" 합동 시위

오늘 부산광역시청사 광장서 시위  
소상공인연합회·소생연 연대 참여

홀덤편협회가 14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청사 광장에서 '홀덤편 집합금지'와 홀덤편 고위험시설 해제를 위한 합동 시위를 펼친다.

이번 시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생연(소상공인업종별생존연대)의 연대를 통해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6개 업종의 업주들을 대변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홀덤편협회는 시위를 통해 홀덤편의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고, 고위험시설 해제와 집합금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퍼포먼스는 실제로 홀덤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과 아크릴 분리대, 1회용 장갑과 소독제 등을 펼쳐놓고 홀덤편 이벤트 장면을 시연할 예정이다. 홀덤편 운영이 방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홀덤편협회의 설명이다.

이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방역지침이 없어 홀덤편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됐지

만 체계적인 방역지침 수립과 위험요소를 제거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고위험 시설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홀덤편 집합금지의 충분한 근거 없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영 홀덤편협회 회장은 "협회를 만든 결정적 계기는 모든 홀덤편이 방역과 관련해 안전한 기준을 세우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편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도 협회의 입장과 노력을 확인하고 고위험군 분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장외 활동을 통해 홀덤편 집합금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협회는 14일 시위에서 홀덤편 방역지침을 행정당국에 설명하고 개선이 없을 시 더욱 강도 높은 시위를 펼쳐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경 객원기자 revolej@hanmail.net

홀덤편협회가 14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청사 광장에서 '홀덤편 집합금지'와 홀덤편 고위험시설 해제를 위한 합동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는 홀덤편 업주.

